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6호 [루게 제24549호] 주제 103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봉팀과 소백수팀 사이의 남자 축구 경기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  
군장병들과 함께  
만경봉팀과 소백수팀  
사이의 남자축구경기  
를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변인  
선동지, 박영식동지,  
염철성동지, 조경철  
동지, 김영철동지,  
오금철동지, 박정천  
동지, 마원춘동지가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고  
경기를 보게 된 인민  
군장병들의 가슴은  
기쁨과 환희로 세차  
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  
기에 참가하였던 만경봉팀과 소백수  
팀은 평시에 편마한 높은 기술을 발  
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  
한 답례를 보내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우리 식의 체육  
기술과 전술체계, 훈  
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  
올려야 한다고 하시  
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  
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 흘림으로  
써 훌륭한 경기  
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기를 보시면서 인민군대의 체육인  
들이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  
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대하  
여 치하하시였다.

망팀 선수들이 경기시작부터 주  
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  
을 벌였지만 전반전은 득점없이  
끝났다.

후반전에 들어와 체치있는 편락과  
속공으로 상대팀 문전을 연속 위협하

던 소백수팀의 선수들이 2, 3인결합에  
의한 차넣기와 11m벌차기로 두골을  
넣었다.

멋있는 득점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응원에 열을 올렸다.

만경봉팀의 선수들은 신심을 잃지  
않고 팀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적극적  
인 공격을 들이대었으나 잃은 점수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2:0으로  
이겼다.

관람자들은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선군혁명  
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  
한 시간을 내시여 경기를 보아주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체육강  
국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었다.

황병서동지, 변인선동지, 박영식동지, 량철성동지, 조경철동지, 김영철동지, 오금철동지, 박정천동지, 마원춘동지가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경기모습을 보여드리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하여 선수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경기는 남, 녀단체경기로 진행되었다.

경기출전한 선수들은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평시에 평범한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활쏘기경기종목의 면모를 잘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살들이 목표판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가 맞을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해 주시었다.

최근에 진행된 세계컵활쏘기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의 활쏘기선수들이 자기들의 높은 활쏘기기술을 보여주며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 주었다.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의 활쏘기선수들이 우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선수들이 활쏘기기술을 잘 다루고 지하시며 활쏘기경기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자면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세계의 창공에 랍송색공화국을 휘날리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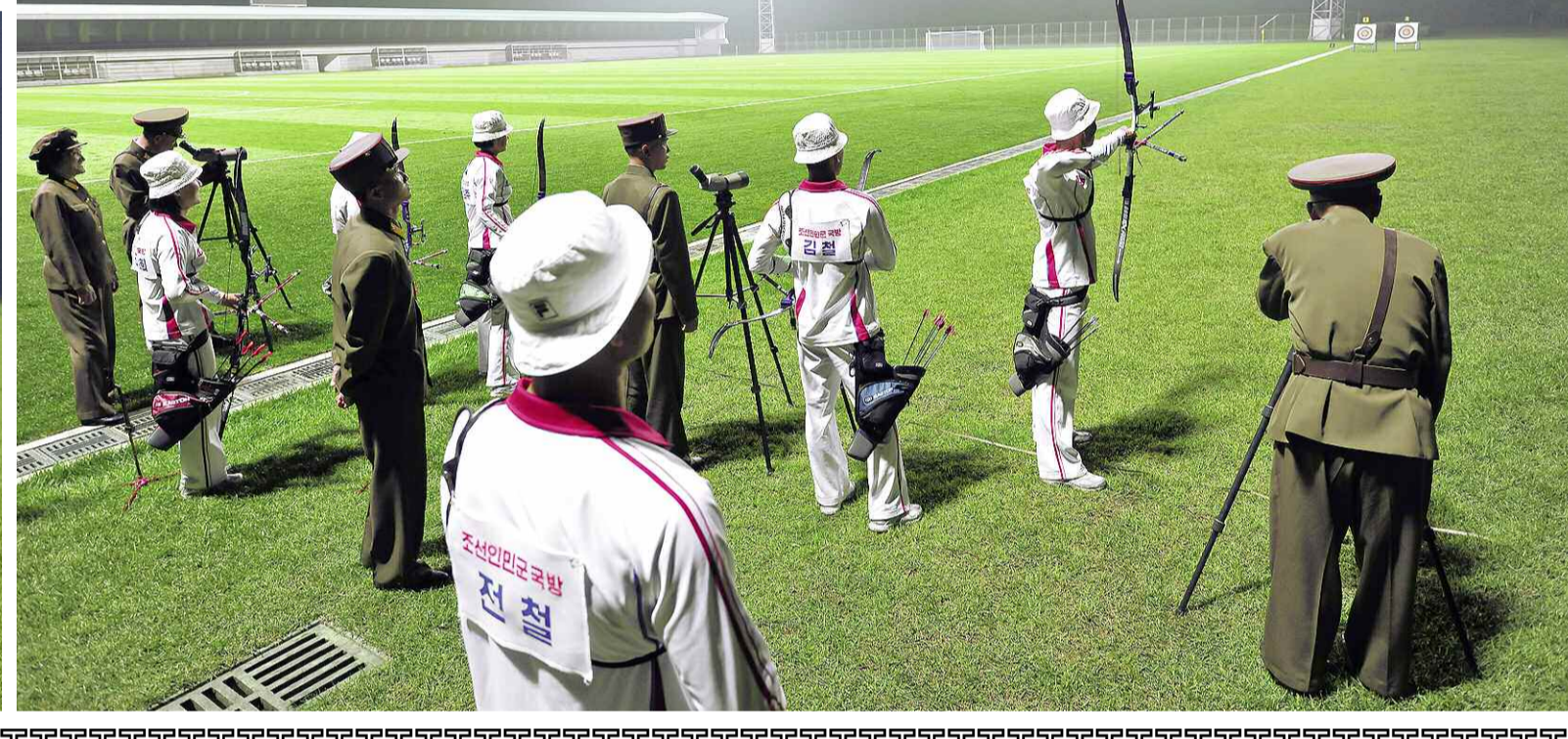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활쏘기기술과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하며 훈련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감독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에서 더 많은 맘을 흘림으로써 우리나라의 활쏘기종목을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사 설

# 당의 령도 따라 새로운 주체 100년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자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오늘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이 세계를 휘몰아치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주시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진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주체문학예술건설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 따라 우리의 문학예술을 혁명적 건설에 이바지해 온 긍지높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어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 문학예술이 나아갈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도를 하나하나 다져놓으셨다. 위대한 령도력으로 항일혁명문학작품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종합체계화하시였으며 우리 조국명우에 온 세계가 경탄하는 20세기의 문예부흥기를 펼쳐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혁명적 건설의 사상적무기로 자랑떨쳐온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면모와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민제보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전성기를 펼쳐 제 100년대에 대비하여 문학예술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파시되게 될것이다.

문학예술혁명의 힘찬 포성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비상히 앙양시켜 온 나라에 대비 약력혁명의 기상이 세계에 나래지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품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불굴의 기개와 애국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만민시원을 파강히 뽐내고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이 있기

1970년대와 같이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인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이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문예인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이다.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주체문학예술건설의 고귀한 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다.

장강 수심상상에 걸치는 주체문학예술의 발전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참담케 이바지해 온 긍지높은 역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어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 문학예술이 나아갈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도를 하나하나 다져놓으셨다. 위대한 령도력으로 항일혁명문학작품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종합체계화하시였으며 우리 조국명우에 온 세계가 경탄하는 20세기의 문예부흥기를 펼쳐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혁명적 건설의 사상적무기로 자랑떨쳐온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면모와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혁명적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침투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보내려 하기 위해 피 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이 되고있다. 최신과학기술과 도용하여 감행하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자면 인위적으로 당중앙을 옹위한 1970년대의 문학예술인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명작창작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벌려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 《성황당》식 5대혁명연극을 창조하되 투쟁기풍과 결사관철의 정신이 문학예술부문 전반에 차넘쳐야 한다.

하고 온 나라에 필승의 기상,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나래지고있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는데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을 들끓게 하고있는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은 문학예술의 감화력과 견인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예술활동으로 인민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 때 뽐지 못할 난관, 절명 못할 요새만 있을수 없다.

사상의 힘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천만의 피를 뚫고 하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를 안겨주는 문학예술이 요구된다. 문학예술혁명의 우렁찬 포성이 자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승리와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활력이다. 수없는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는 문학예술을 하루빨리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높이,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온 나라가 대비약, 대학원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려는데 이번 대회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혁명적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침투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보내려 하기 위해 피 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이 되고있다. 최신과학기술과 도용하여 감행하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자면 인위적으로 당중앙을 옹위한 1970년대의 문학예술인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명작창작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벌려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 《성황당》식 5대혁명연극을 창조하되 투쟁기풍과 결사관철의 정신이 문학예술부문 전반에 차넘쳐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문예사상과 리론, 업적을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주체문학예술의 영예이다.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령도는 천재적인 예지와 대담한 혁신으로 일관된 현명한 령도이고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첫차리에 놓는 인민적령도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전성기로 빛내어나가야 할 승스러운 임무가 우리 문학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다. 시대의 명작은 명도자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산물이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혁명으로 당중앙을 옹위한 1970년대의 문학예술인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명작창작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벌려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 《성황당》식 5대혁명연극을 창조하되 투쟁기풍과 결사관철의 정신이 문학예술부문 전반에 차넘쳐야 한다.

세계적인 걸작들을 만들기 위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정책이 정확히 반영되고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작 한편한편은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며 천만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하나의 작품을 써내고 만들어도 정책적대가 확고히 서고 시대의 지향,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 명작으로 만드는 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천만군민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 높일 한 명작들을 거머 내놓겠다는 창작적자심과 만만한 투지를 안고 질체적의해와 힘을 적극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본보기명작들인 노래 《조국찬가》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와 같은 수준에 모든 작품들을 올려세우는 원칙에서 명작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올래를 문학예술부문에서 변이 나는 해로 빛내여야 한다.

특히 영화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영화혁명의 불길높이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을 선도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기판자가 되어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전반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영화창작목표를 실속 있게 세우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파파로 될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문학창작단위, 예술단체들에서 시대를 대표하고 세계적수준을 압도할수 있는 훌륭한 명작들을 내놓기 위한 창작경쟁, 예술창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실은 문학예술창작의 기틀진 토양이다. 들끓는 현실속에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있고 시대정신과 인민의 지향이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언제 가도 좋은 작품을 만들수 없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배낭을 메고 벽한 현실속에 용감 뛰어들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인민과 승결을 같이해야 한다. 공장과 농촌, 마작과 건설장, 학교와 마을, 과학연구기지 등 인민들이 살며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창작전진으로 가고 그들에게서 적극 배우며 명작창작의 성공담을 높이 쌓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태어난 모란봉악단은 당정책에 민감하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며 혁신하고 또 혁신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란봉악단과 같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대로, 제능있고 생기발랄한 예술집단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고 긍지이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 모란봉악단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최간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한 공연을 준비하여 평양과 량강도에서 열정적인 예술활동을 벌린 그 정신, 그 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모란봉악단처럼 자기 부문, 자기 단체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당정책에 민감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새로운 문학예술작품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는가, 울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창작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꾼들이 정책적으로 이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이 높으며 자기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힘장과 양심한 일욕심, 만능의 실력과 능숙한 사업전개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 당의 의도에 맞게 문학예술전반에서 혁명을 일으킬수 있다. 일꾼들은 패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관념과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문학예술혁명을 주도해나가는 키잡이가 되고 총동기가 되어야 한다. 당적원칙, 사회주의원칙에 확고히 서서 창작지도와 심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작품을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두말을 걸어붙이고 작품창작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패배나 주고 총화만은 식이 아니라 창작가,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창작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해나간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좋은 작품을 내놓는데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간도록 평가사업과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을 잘하여야 한다.

주체문학예술발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 위대한 토대가 있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고귀한 지침과 본보기가 있기에 우리 문학예술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여, 위대한 포부과 신심, 왕성한 투지와 창작분배를 지니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주체문학예술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가자!

# 혁명군가 높이 울리며 안아오신 빛나는 승리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 진군기에 찬만군가를 최후승리로 부르지는 장쾌한 음악포성이 울린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대 회집진이 맥박치는 투쟁과 변혁의 시기에 우리 찬만군가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연이 주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참신하면서도 활력있고 독특하면서도 황홀한 음악세계를 펼치는 모란봉악단은 이번이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위대한 업적과 생활력을 영원히 빛내어주시려는 장군님의 원수의 승고한 뜻을 크나큰 격정속에 새겨본다.

참다운 음악예술로 혁명을 이끄시고 만민들의 심장에 투쟁의 불을 지피는 혁명군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이번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뜻 깊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와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군중을 교양하고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심과 광만에 넘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냈 습니다.》

혁명의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일제적 혁명과 건설에서 음악이 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음악 을 시대를 선도하고 대중을 불려일으키는 위대한 무기로 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에 없었던 음악정치를 독창한 정치를 펼치시여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 건설장조 어디에서나 혁명적가 백이 찬란치는 혁명군가의 노래 시, 풍만한 생활의 정서가 넘치는 노래와 음악이 언제나 울리게 하시였다.

혁명의 노래로 찬만군민의 심장을 뚫어잡고 혁명군가의 위력으로

시대와 혁명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정일봉의 우뢰소리마당 힘차게 울리는 공훈 국가합창단의 우렁찬 합창소리도 전하고있다.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이 천지를 들끓이듯 울리는 공훈국가 합창단의 혁명군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혁명의 불,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불길을 지피시며 업적을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와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안아오시였다.

주제88(1999)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당시)의 공연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잘하였다고 치하시며 나는 인민공훈합창단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든든하며 힘든 줄 모르고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고있다고, 우리 혁명에서 가장 엄숙한 시기였던 지난 5년간 인민군공훈합창단은 앙갚음에 있어서 힘과 의지로 되었으며 믿음직한 방조자로 되었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조선인민군 공훈 합창단을 선군정치의 나팔소리를 쟁쟁히 울려나가는 전투적예술부대 로 키워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그들의 헌신의 로고와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군가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하였다.

그 나날 혁명군가는 수천의 식량 을 대신했고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기를 폭탄으로 되었다.

꺾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는 천 만군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의지와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이 힘있게 맥박치는 혁명군가,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공훈합창단의 군가를 그리도 사랑하셨다.

일군들은 바라는바와 달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 단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예술창조

사업과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 최고사령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전투적인 공연활동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을 따라 최전선의 고지들과 파도치는 군항, 온빛날개 번치는 활주루우 에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강계 정진이 내내치는 자강도를 비롯한 각종의 로동계급에 초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를 안고 안아가 시였다.

로동계급과 한자리에 앉아서 공훈합창단의 노래 《우리는 빈터 에서 시작하였네》를 들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보기도 귀중한 혁명정신임을 주시 고 억척만반이라고 다시 일어나 싸울 백절불굴의 투지와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적들과의 대결전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불패의 군력과 함께 노래의 포화로 적들을 되게 다물리 고 하시고 멀적의 명중탄을 퍼부 기도 하시였다. 정녕 그이렇게 있어서 음악은 혁명의 무기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힘의 때 매다 공훈국가 합창단의 노래도 보고 인민군군 부대에도 나가도 한다고, 공훈국가 합창단의 힘찬 군가를 듣고 인민 군인들의 혁명정신이 차라지는 모습을 보면 새 힘이 솟고 신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어떤 이름있는 합창단지 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들은 감명속에 보고나서 자기의 격 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당신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세 계를 뚫은것으로 통일할수 있을것 이다. 한때 서방사람들은 우리 합창단 의 공연을 보고 총 한방 쏘지 않고 자기들을 절멸했다고 말하였는데 조선의 합창단의 노래는 이제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 세계를 정복시킬수 있을것이다.》

영생 불멸의 혁명 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부

터 자기의 탄생을 알리고 대를 이 터 혁명승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우리 시대의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그 이름 떨쳐가는 공훈 국가합창단.

그뿐이 아니다.

가장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에 군 인가죽에숨소조경연을 발기하시여 찬만군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주제87(1998)년 2월 인민 군지회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군인가족들과의 사업을 중시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군인 가족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예술소조 활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이 아주 중 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군인가족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활 발히 벌리는것은 강행군에 떨쳐나 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데도 좋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는 나라 전체 인민이 최후승리를 위 한 강행군을 다그치고있는 어려운 시기에 군인가족들이 노래를 부르 고 춤도 추면서 신심과 락관을 넘쳐 락적으로 생활하면 《최후승리를 위 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당의 전 투적주호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 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신 인민군 군인들은 물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 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 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이날의 가르치심에는 혁 명가의 이해들인 군인가족들의 전 투적인 노래로 인민들을 최후승리 에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시는 는 그의 승고한 뜻이 뜨겁게 굶이 고있었다.

절세위인의 다심한 사랑과 온정 속에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부 르 는 혁명군가는 최고의사명사의 선군 혁명의 기사, 진격의 나팔수인 공훈 국가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이르는 꽃마에나 대결전을 받았다.

최고사명관직을 겸을겸을 따르 는 군인가족들의 신념과 망심의 분 출인 혁명군가는 사상성에서 도 제일이고 전투성에서도 최고이며 예술성에서도 으뜸이었다.

남들같은 몇십종목에도 다 담 지 못할 뜻과 사상정서를 한 편의 노래와 한마디 말, 한가락의 춤으로 보여준 군인가족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련 혁명가 의 안해들이 진행하는 군인가족에 예술소조공연을 보면서 승리의 신심을 가다듬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하 여 한몫 다 바쳐 싸워갈 불같은 결 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지와 독창 적인 문예사상, 빛나는 예지와 따뜻한 보살핌을 떠나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던 준엄한 그때 군인 가족예술소조공연이라는 희한한 화 신부대가 펼쳐지리라고 누가 상상 할수 있었으랴.

군인가족예술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뜻이 우리의 가슴 을 세차게 울려준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전통화 하면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적인 생활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을 것이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사람들 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큰 감동력을 가지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불을 달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헤쳐가 겠다면 군인가족들의 전투적인 투적주호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 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신 인민군 군인들은 물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 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 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이날의 가르치심에는 혁 명가의 이해들인 군인가족들의 전 투적인 노래로 인민들을 최후승리 에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시는 는 그의 승고한 뜻이 뜨겁게 굶이 고있었다.

절세위인의 다심한 사랑과 온정 속에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부 르 는 혁명군가는 최고의사명사의 선군 혁명의 기사, 진격의 나팔수인 공훈 국가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이르는 꽃마에나 대결전을 받았다.

최고사명관직을 겸을겸을 따르 는 군인가족들의 신념과 망심의 분 출인 혁명군가는 사상성에서 도 제일이고 전투성에서도 최고이며 예술성에서도 으뜸이었다.

영화혁명의 불길이 라탄지던 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작업 필 름도 몸소 보여주셨다.

영사막으로 흘러가는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깊게 보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이르러서 문득 영사기를 멈추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방금 흘 리간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사 화면과 음악이 잘 맞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어리둥 철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 장면으로 말하면 영야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셨고 잘 되 었다고 치해주시던 부분이었던 것이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작업 필 름을 만드는 과정에 화면을 자르지 않았는다고 물으시였다.

영의 장면에 대하여 다시금 곰 품히 되새겨보던 일군은 필름을

자른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 별게 웃으시더니 확실히 전원의 작 업필름보다는 못하다고, 음악과 화 면의 밀착도가 차이나는 것 같다고 말씀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영화에서 음악은 장면 의 계기에 꼭 맞게 써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잘라낸 필름이 없는가 한번 잘 찾 아보라고 다정히 이시였다.

일군들은 즉시 잘라낸 필름이 없 는가를 알아보았다. 결과 연출가가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자기도 모르 게 23칸의 필름을 잘라냈다는것 을 알게 되었다.

1초동안에 24칸의 필름이 흐 르는 영사에서 23칸의 필름이 라는 전문가들도 미처 알아보지 못 할 미세한 차이이다.

하지만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도 사상에예술적으로 완벽한 작품을 창작 해야 한다는 승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것은 소홀 히 할수 없는 너무도 큰 차이였다.

## 영사기를 멈춘 사연

## 개우쳐주신 문제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 중한 어조로 그러니까 동무들은 그것으로써 만족하는가고 하시며 안락을 흐리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과 지도일군 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도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시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줄 알아야 한 다. 동무들은 아직도 사람보다 일 을 먼저 보았다. 우리 당이 벌려 는 기술혁신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기술적, 자동화전이라고 프 롬을 하셔야 되였다.

이윽고 천정에 작업하고있는 조영사들의 작업모습을 다시금 바 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 군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며 결정적 으로 조영사들을 현대화해야 하 겠다고, 눈앞의 바쁜 생산과제만 보면서 기술발전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에 있어서 생산을 방해하 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마더마더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 군들의 가슴은 새겨진것으로 한없이 깊어번지였다.

## 영사기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 《세상에 부 름없어라》의 촬영을 현지에서 지 도해주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일군들과 촬영자들에게 영화창 작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 득 촬영장의 천정에서 시선을 멈추 시였다.

천정에 가로지른 발판우에서 조영 사들이 무거운 조영설비들을 움직이 면서 촬영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한동안 조영사들의 작업모습을 상 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 며 저 동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죄송스러운 심정 을 금할수가 없었다.

조영설비들을 현대화해야 한다 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시간이 없 었다 그것을 하루하루 미루어왔기 때문이었다.

일군들은 그의 걱정을 다스나 마 덜어드릴 생각이요 조영사들이 허리에 안전바줄을 매고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 본사기자 리금분

본사기자 리금분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무답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이 15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제적문예 사상에 리론을 제시하고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모습을 창조하시여 인민대중 을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투쟁 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찬란히 빛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기며 배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 을 찾았다.

그들은 배두산대국의 영상이 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 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 일 성 대 원 수 님 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름없는 경도의 정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 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 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띄어 놓여졌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 들어 인민의 품과 리상이 넘쳐나 는 우리 당의 사상으로서 뚜렷이 무 상하고 지킬 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불타는 열정을 지닌 창작가, 예술인 들만이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들의 사 랑을 받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

예술은 창작가의 사상의 산물이다. 예술작품의 질과 창작속도를 높이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은 창작가의 사상적신상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세계 적인 대문호로 명성을 떨친 백인준선생 은 50여년의 창작활동기간 수많은 명 작품을 창작하였다. 백인준선생은 당에 서 시를 쓰라낸 시를 쓰고 가극혁명을 할 때에는 가극대본을 쓰고 영화혁명을 할 때에는 영화문학을 썼으며 회곡과 수시편의 명가사들도 창작하였다. 그가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예술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문학예술의 여러 분야에 걸쳐 좋은 작품을 내놓으수 있었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제적인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의도와 요구를 자기 작품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온몸을 불태웠기때문이다. 백인준선생은 혁명 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교시와 말씀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거기에서 충사를 잡는것 을 어길수 없는 창작활동의 출발점이 었었다. 하기에 그 창작가들 한현한현 의 작품들이 당의 사상과 시대적요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명작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오늘 만민들의 심장을 뚫어잡는 훌륭한 명곡들을 수많은 내용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들의 눈부신 창작성과도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예술적재능에만 그 비결이 있는것이 아니다. 당과 혁명 의 요구를 구현하는것을 창작가의 첫 번째는 사명과 본분을 삼고 당의 사상과 의도, 시대의 벽한 숨결을 가사와 선율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심장을 불태워온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고 귀한 결실이다. 오선지를 결사관철의

사상적무기로 여기고 김정은시대의 정 신을 선물마다에 새겨넣은 이들의 창 인공의 세련된 모습을 익히기 위하여 촬영장단 쉬임없이 첩찰을 오르며 80 고령에 출연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에서 로동계급다운 폐기와 행동을 유연성 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기간 승용차 와 배스를 마다하고 집에서부터 촬영소까지 자전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불타는 열정은 성공의 어머니 이다. 이러한 열정의 인간정품이 그 는 오늘날도 영화배우 유원준이가 아니라 《강태판야이》로 불리우 며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살아 빛 나고있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 고 오늘의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사로 서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문 학예술의 풍만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창조적시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 것이다.

윤철희



주제적인 연극영화예술발전에 쏟아내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낼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본사기자 적음

## 잇을수 없는 첫 예술인대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사상사업의 중요 수단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로 불려일으키는 데서 커다란 견인력과 강화력을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예술인 대회는 주제35(1946)년 5월 24일 평양에서 성대히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라는 령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주조건설에서 문화인들의 지위와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그들의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문화인, 지식 인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당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 문화인, 지식인들은 건국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었지만 문화전선의 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 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 는가 못 싸우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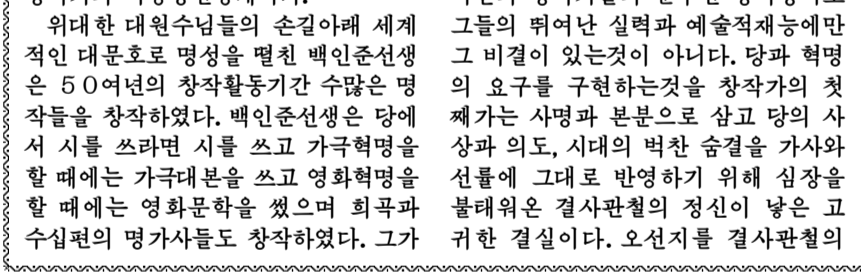
대중속에 들어가서 대중이 알 아들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는 문제,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대중의 심 리를 잘 알고대중의 말로 말한데 대한 문제, 대중을 가르칠뿐이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울줄 아는 사람이 될데 대한 문제들은 새 조선의

문화인, 지식인들이 나아가갈 앞길 을 등대처럼 환히 비쳐주는 지침 이였으며 통속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문화전선사업의 원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 의 문화인, 지식인들이 벌려야 할 정치투쟁의 본질과 승리의 필 요성을 확증하시였다. 적들은 허 위를 선전하고있기때문에 그들 에게는 껀만이 필요하지만 진리 를 선전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오직 인민이 리해할수 있는 말과 글 로 정의와 진리를 대중속에 잘 선전하고 해설하는데 힘써야 한 다는데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예술인대회는 해 방후 민족문화예술이 나아가갈 가장 정당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의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선생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선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여러곳 참관

그들의 가슴마다는 민족의 순결한 마음들이 어려고 억 만군에도 비길수 없는 선군조선 의 재보를 고스란히 인민들 에게 안겨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흥모와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졌다.

조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그들은 전승열병식광장을 걸이 전하는 시대의 기념비, 승 리전공포양의 중심지, 만미계

대회를 참관자들은 위인충조의 대 보물고이며 태양 민족의 만년대국인 국가선물관을 참관하였다.

홍 서 판 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징상을 우리러 그들 는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 들 은 배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온 겨레 의 열 화 감 는 경모심이 어려웠 는 선물들을 보 며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 영화예술발전의 길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영화혁명의 불길이 라탄지던 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작업 필 름도 몸소 보여주셨다.

영사막으로 흘러가는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깊게 보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이르러서 문득 영사기를 멈추도록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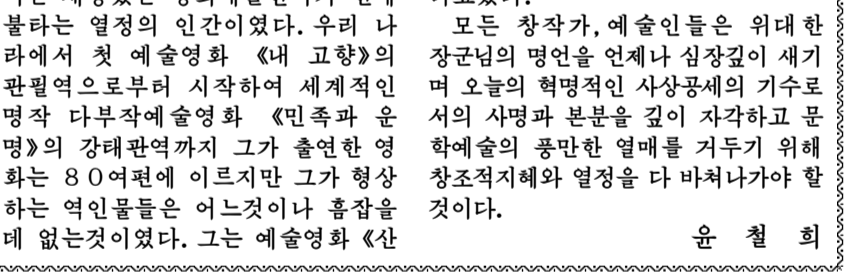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방금 흘 리간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사 화면과 음악이 잘 맞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어리둥 철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 장면으로 말하면 영야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셨고 잘 되 었다고 치해주시던 부분이었던 것이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작업 필 름을 만드는 과정에 화면을 자르지 않았는다고 물으시였다.

영의 장면에 대하여 다시금 곰 품히 되새겨보던 일군은 필름을



주제적인 연극영화예술발전에 쏟아내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낼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본사기자 적음

## 잇을수 없는 첫 예술인대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사상사업의 중요 수단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로 불려일으키는 데서 커다란 견인력과 강화력을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예술인 대회는 주제35(1946)년 5월 24일 평양에서 성대히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라는 령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주조건설에서 문화인들의 지위와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그들의 사명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문화인, 지식 인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당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 문화인, 지식인들은 건국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었지만 문화전선의 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 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 는가 못 싸우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대중속에 들어가서 대중이 알 아들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는 문제,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대중의 심 리를 잘 알고대중의 말로 말한데 대한 문제, 대중을 가르칠뿐이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울줄 아는 사람이 될데 대한 문제들은 새 조선의

문화인, 지식인들이 나아가갈 앞길 을 등대처럼 환히 비쳐주는 지침 이였으며 통속적이면서도 알기 쉬운 문화전선사업의 원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 의 문화인, 지식인들이 벌려야 할 정치투쟁의 본질과 승리의 필 요성을 확증하시였다. 적들은 허 위를 선전하고있기때문에 그들 에게는 껀만이 필요하지만 진리 를 선전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오직 인민이 리해할수 있는 말과 글 로 정의와 진리를 대중속에 잘 선전하고 해설하는데 힘써야 한 다는데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예술인대회는 해 방후 민족문화예술이 나아가갈 가장 정당한 길을 밝힌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친 우리 당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비끼는 위인의 세계

위인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상과 불타는 열정이 깃들고 비범한 창조적 재능과 높은 지성의 세계가 어려서는 위인의 문학예술작품들은 그 위인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에 조예가 깊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년시절에 벌써 창작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때에 벌써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같은 심오한 사회적 주제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심장깊이 체득하시고 작품창작에 구현하신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들의 수령》, 《조선화》와 같은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충직한 혁명가, 숭고한 도덕의 리더의 최고화신인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생동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 화폭이다. 항일의 피바다를 건너, 전외의 불바다를 헤쳐 나가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자랑으로 어머니로

높이 칭송한 작품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품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구체적인 정황과 뜻깊은 생활의 계기에서 창작된 것으로 하여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커다란 정서적감동력을 발휘하고있다.

아버님 주무시는 밤 책상위에 놓인 시계를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우시며 《시계가 아니라도 좀 더디게 가다오》라고 홀로 뇌이시던 모습이 고전적명작 《환초가 한시간 뒤(환초수 없을)》에 실려온다. 해빛밝은 교실에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승리한 조국의 환희를 노래하시고 새 나라의 일군으로 준비할 결의를 다지는 는 불빛의 형상이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서 빛나고있다. 거대한 조국해방전쟁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홀리시었던 편지의 구절구절을 읊으시던 모습이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서 빛나고있다. 거대한 조국해방전쟁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홀리시었던 편지의 구절구절을 읊으시던 모습이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에서 빛나고있다.

명말없는 작가도, 음악창조도 머리가 회어낸 작곡가도 그 철학의 심오성과 선물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 이 작품은 미국놈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폐허로 화한 평양의 모란봉에 소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론쟁이 벌어졌을 때 모란봉의 소나무는 꽃이 피어 있다고 하시면서 일기와 함께 어머니 하나를 잊고서 고향을 돌아와 부르신 작품이다.

정은 고향, 안아키워준 어머니와 같이 가장 고귀한 감정을 품어 부르신 조국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요는 종자의 거대한 사회정서적의의와 철학적무게로 하여 작품은 우리 문학예술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어머니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보여주는 축도라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혁명활동의 자욱을 새기시던 날에 창작하신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고전적명작들의 구절구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절대위인의 위대한 포부와 신념의 맹세였던 것은 세상에 향해 장엄하게 터져서 역사를 천하에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제국주의자들이 풍어오는 침략과 고압압살의 광풍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서군조선의 국력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모든 영광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야전부처처럼 오백두의 행군길을 즐기치게 이어오신 어머니장군님의 한평생은 시작과 같이 하나로 판통되고 결실과 결과가 완전한 일치를 이룬 천출위인의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의 인간학의 진영, 사회주의적실질주의의 본보기로서 지난 수십년 전 혁명위업수행과 주체문학예술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땅에서 나시자면 사람이란 누구나 우리 말을 처음 배울 때부터 절대위인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배우며 자란다. 티끌이 맑고 순결한 마음속에 새겨진 고전적명작들의 구절구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절대위인의 위대한 포부와 신념의 맹세였던 것은 세상에 향해 장엄하게 터져서 역사를 천하에

아름다운 추억과 숭고한 사상감정을 고전적명작 《나리 오후》, 《진달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어디에 계십니까》(그리운 장군님), 《충성의 노래》, 《우정에 대한 생각》과 같은 고전적명작들을 떠나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불보다 뜨거운 전우애를 나누며 혁명하는 일심단결의 대오를 그려볼 수 없는 것이다.

시와 노래, 연극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의 문학예술창작과 창조의 귀중한 본보기로, 독창적인 주체의 문예사상리론적바탕으로 되었으며 절대위인의 손길아래 펼쳐진 20세기 문예부흥의 장천의 주동력으로 되었다.

이렇듯 천체적인 창작의 스승, 문학예술의 영재를 영도자로 모시고 투쟁하여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영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위대한 혼연 일체의 대오 속에서 어머니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영원히 높이 올릴 것이며 그 숭고한 정신과 창조적 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반드시 온 세상이 우러르는 주체의 예술로 길이 솟아 빛날 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과 가극, 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즐기며 힘써야 할 것인데, 특히 혁명적본보기를 창조하고 《피바다》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197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져 명작창작에서 혁명적창안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온 사회의 주체화사업의 실천에 이바지하는 국보적기치를 지니는 명작들이 수없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에 옮기는 과정에 예술영화 《꽃과는 처녀》, 《한 지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쫓다》가 혁명적대작으로 훌륭히 창조되었다. 그리고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가 5대혁명가극으로 완성되었다.

예술영화 《한 지위단원의 운명》은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적대작으로 완성되어 영화창작에서 주도권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세계 영화계를 들었다놓은 예술영화 《꽃과는 처녀》도 1970년대 영화혁명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창조된 귀중한 성과작이다.

또한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무대에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혁명적창안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온 사회의 주체화사업의 실천에 이바지하는 국보적기치를 지니는 명작들이 수없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에 옮기는 과정에 예술영화 《꽃과는 처녀》, 《한 지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쫓다》가 혁명적대작으로 훌륭히 창조되었다. 그리고 혁명가극 《피바다》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 분야에서도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가 주체적인 배합관현악으로, 세계적인 작품으로 훌륭히 형성되었으며 무용예술부문에서는 1960년대 후반기에 창작된 무용 《눈이 내린다》에 이어 무용 《조국의 진달래》, 《이춤》, 《사과편지》이 새로 창작된 성과작이다.

또한 조선화의 본보기작품인 《강선의 저녁놀이》가 창조되어 주체미술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교예예술부문에서는 우수한 공중교예작품들이 창조되고 교예교과목강조에서도 전한이 일어났다.

문학예술의 전반적부문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한 기념비적명작들은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발전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빛도 내걸을 용호고수하고 더불어 나갈 투철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새 세계 명작창작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뛰어난 철학자, 정치가이며 대재능한 지도자입니다.》

주체문학예술사에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생각할 때면 누구나 저도모르게 눈앞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다. 대극장의 불빛이다.

대극장의 불빛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로써 우리 나라에서 타올랐던 주체문학예술혁명의 불길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 《꽃과는 처녀》, 《밀밭이 이야기하라》와 같은 작품들을 편이 창작완성시켜주시는 과정에 이어 혁명적대작 《조선아 너를 빛내라》,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를 태어나게 되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그 엄박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극장에 나오시어 작품들을 보아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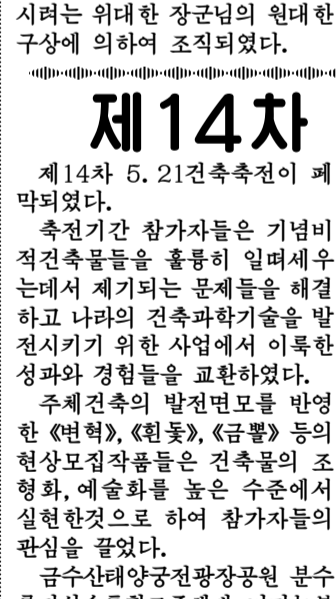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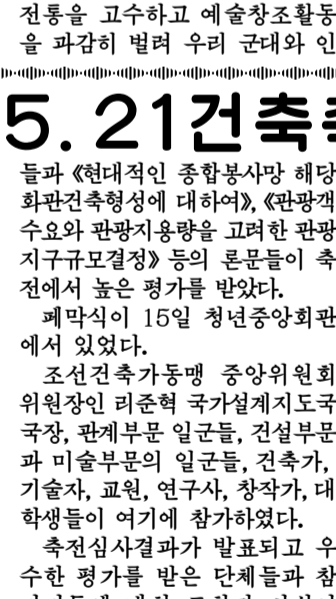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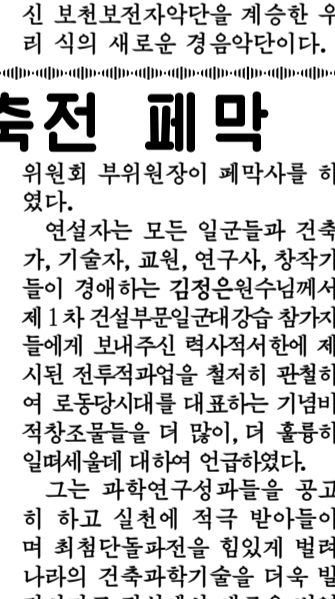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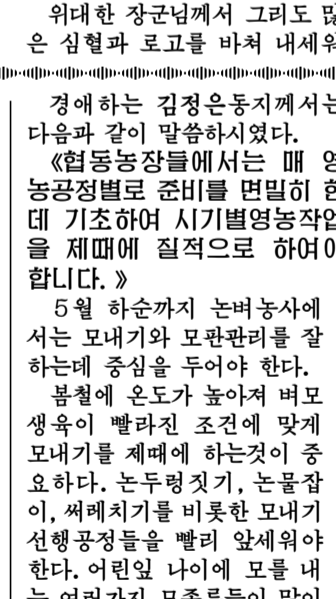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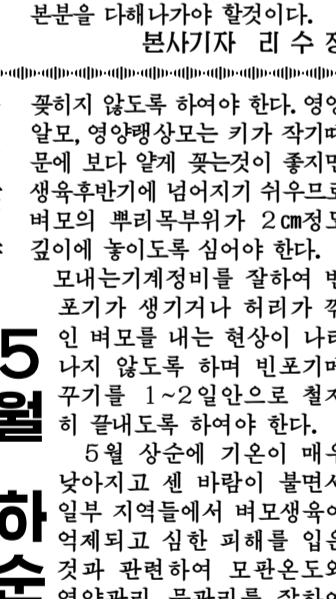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국장애인련합회대표단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이 이 려스의 집에 손님을 맞는 불빛의 이야기를 들으며

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 개선문, 우의탑, 문수기능회복원 등을 참관하였다.

이런 선순례에는 우리 나라와 이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23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선순례대회에서 금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세용선수는 남자고정형 42kg급 경기에서, 리금철선수는 남자자유형 42kg급 경기에서 각각 제1위를 쟁취하였다. 여자경기에서 박미경, 김선향, 연조화선수들이 43kg

급, 46kg급, 49kg급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남자고정형 50kg급 경기에서 로영진선수는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금, 46kg급, 49kg급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남자고정형 50kg급 경기에서 로영진선수는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금, 46kg급, 49kg급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남자고정형 50kg급 경기에서 로영진선수는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리명남부부장, 손광호 체육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란대사관 성원들 평양시대 여러곳 참관**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전대사는 감상록에 위대한 김일성각하에 의하여 창시된 주체사상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창시로서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되고있다. 이란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손님들은 15일 메아리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사적장, 활쏘기장, 전자유회 오락시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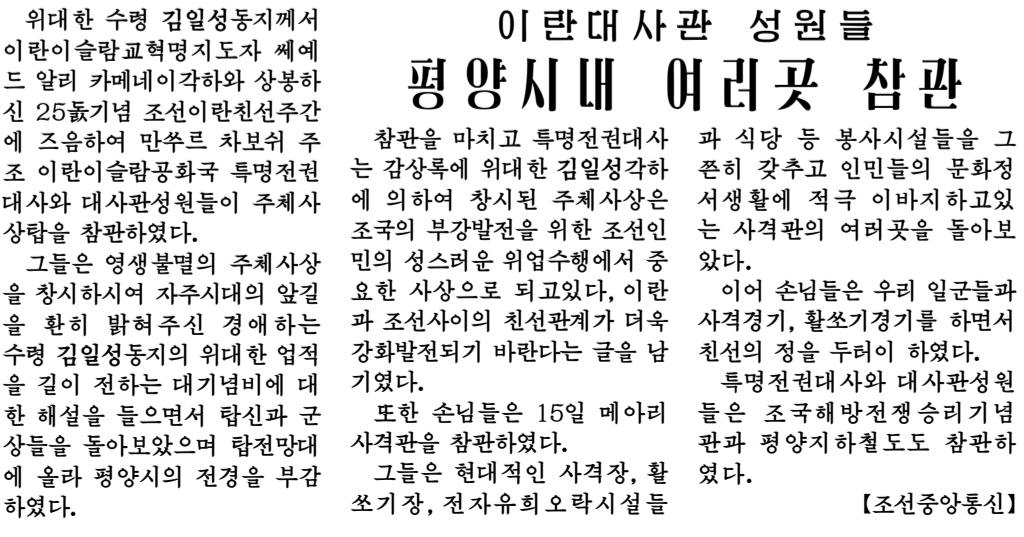
선전선동의 원바람을 세게 일으켜 대중을 위훈창조로 불리일길 열의에 넘쳐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관공에서- 본사기자 리 경 작

## 제14차 5.21건축축전 폐막

제14차 5.21건축축전이 폐막되었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주체건축의 발전면모를 반영한 현상모집작품들은 건축물의 조형과,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탄성을 끌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분수특이설수용구조물, 다기능분수건물 실내장식인내를 비롯한 건설설계프로그램 및 다메제련물

## 우 리 선 수 들 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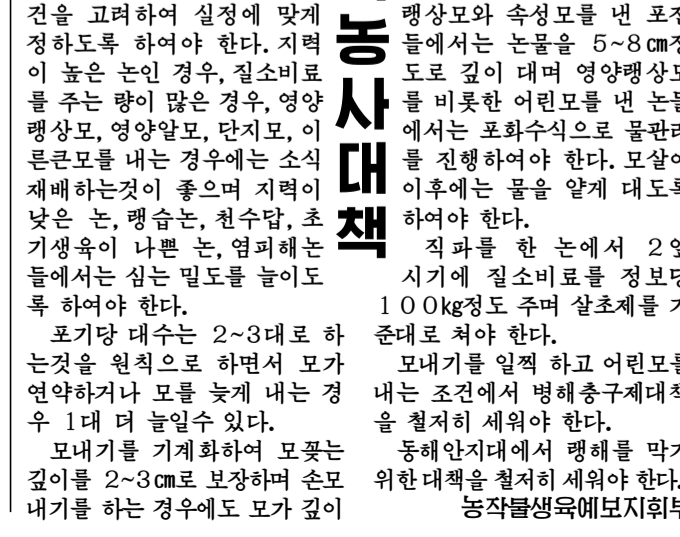
제14차 5.21건축축전이 폐막되었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주체건축의 발전면모를 반영한 현상모집작품들은 건축물의 조형과, 예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탄성을 끌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 분수특이설수용구조물, 다기능분수건물 실내장식인내를 비롯한 건설설계프로그램 및 다메제련물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 괴뢰역적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 당장 없어져야 할 미국의 식민지체제

외세 추종과 미국배척이 뼈속까지 숨배어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의 무리, 상전의 사리사리나 찢는 비루먹은 개우리가 갈치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합부르 샷대질을 해대었다. 우리를 **「나라 아닌 나라」**, **「인권을 자유도 없는 나라」**라고 함부르 휩들어대다 못해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까지 모독한 미물같은 괴뢰군부당나리의 망발은 지금 천만국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금껏 괴뢰패당이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들을 수없이 지점했지만 이번과 같이 극단적인 망당은 처음이다.

괴뢰들이 감히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견지하고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나라인 우리 공화국에 대해 이토록 험악한 망발을 제친것은 후호도 목과할 수 없다.

입이 비틀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하였다. 과연 어디가 **「나라 아닌 나라」**인가. 남조선이야말로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미국의 식민지, 세습정치이다. 남조선피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이 그 무슨 **「자주권 독자성」**을 가지고있는듯이 광고하고있다. 온 세계가 **「상전과 노복의 관계」**라고 손가락질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요사를 펴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주주로서의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유치한 꾀변에 불과하다.

독립국가라면 마땅히 자주권이 있어야 하며 대내외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집행할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피뢰들에게 그것이 있는가. 전혀 없다.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 남조선주둔 미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남조선미국 《경제원조협정》 등 피뢰들이 상전과 체결한 온갖 불평등하고 예측치 못한 조약들에 의해 남조선의 군사주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장점이 《합법화》되었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에 무제한한 특혜와 특권이 부여된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남조선은 말 그대로 미국의 속국, 《식민지 1번지》, 《51번지 주》이다. 피뢰들은 애당초 《국호》마저 사대와 매국을 일삼던탓에 필강들의 각축장에서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방호국이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보호국이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방호국이다」**라고 쉼 없이 상전의 조종술을 감추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수주와 모멸감으로 얼골뜨끼고 있다.

피뢰들은 미국상전이 배아파하면 실사를 해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면 남조선시장을 통째로 내맡겨야 하고 대외관계를 대외하고 하면 남조선의 청장년들이 죽건말건 아랑곳없이 섬겨버쳐야 하며 상전이 던져주는 미친소고기도 반가운것처럼 군말없이 받아먹어야 하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게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야망을 잘 펴야 하는, 노복대우를 받을수 있는것이 피뢰들의 추한 신세이다.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며 실제적으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 막후조종자, 통치자는 다름아닌 미제이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 미중앙정보부 남조선지부 등은 백악관의 지령을 피뢰정권에 내리먹이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 통제하는 현직기수들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 외세의 발바닥을 핥는 가련한 주구

피뢰국방부 대변인들의 망발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격노케 하고있다. 도발이면 이보다 더한 도발, 악행이면 이보다 더한 악행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제 주동이라고 구렁이 나가는 지 뻐이 나가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허바닥을 눌러낸 민족의 망신거리인 두발가진 개, 버벌치같은 김민석같은 어떻게 징벌해야 적성이 풀리지 모르겠다. 자기것이라고는 개발도 없는 식민지주인, 외세의 발바닥이 나 핥는 가련하게 그지없는 거렁뱅이들이 감히 어디에 대고 샷대질하는가. 《세월》호참사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당은 이번의 특대형도발로 민심의 시신을 만데로 돌리고 파멸의 운명에서 헤어나라려고 발악하고있는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지금 우리 로동계급은 하늘

## 돌대가리를 사정없이 박살내겠다

피뢰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김민석이라는 놈은 이름처럼 미혹하기 이룬데 없는 돌대가리이다. 그러나 무지스럽고 멍청구리 같은것만 골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머리에 든것이 없다고 해도 당장 제발등에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스스로 죽을의 화를 부르는 이런 일간이를 대변인으로 내세운 피뢰국방부라는것이 어떤 미친

## 수술칼로 악성종양을 제거하듯이

피뢰국방부 대변인들의 폭언은 분명 지나가나 우리의 사회주의요령을 해칠 개공만 주는 박근혜의 입김을 쏘인 극악무도한 망발이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의 침몰로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는데 함정같이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것만 보아도 이놈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바보의 말을 되받아 외우는것 보다 더한 천치바보는 없다. 박근혜놈들을 해칠 개공만 주는 박근혜의 입김을 쏘인 극악무도한 망발이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의 침몰로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는데 함정같이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것만 보아도 이놈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바보의 말을 되받아 외우는것 보다 더한 천치바보는 없다. 박근혜놈들을 해칠 개공만 주는 박근혜의 입김을 쏘인 극악무도한 망발이다.

## 되살아난 《유신》독재의 망령

지금으로부터 53년전 박정희공산당들이 미국의 지령에 따라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총칼로 권력자리를 찬탈한것은 불법무도의 범죄행위였다.

박정희역도는 집권기간내에 《반공법》,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을 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면서 남조선에 전대미문의 살벌한 공포정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테러와 암살, 고문 등 갖은 잔인한 수법에 매달려 불의에 항거하는 수많은 양심적인 민주인사들과 애국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학살함으로써 회세의 살인마, 파쇼괴형리로 악명떨쳐졌다.

뿐만아니라 군사파쇼당은 저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고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해 《유신》독재체제를 수립하고 군사분계선일대에 공조리트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두고두고 저주받을 민족민영행위를 저질렀다. 《유신》독재자는 비록 거꾸러졌지만 그의 후예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말살하면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던 수십년간의 몸서리치는 악몽을 되살아내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집권한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다. 집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난데도 인민들의 민주화원형을 짓밟은 5.16군사쿠데타를 그 무슨 《국군의 혁명》이니, 《회선의 선택》이니 하고 미화분식하며 《유신》독재부활을 공공연히 기도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특대형선거부정행위로 《대통령》자리를 떠낸 이후에는 선거공약마저 깨버리고 전례없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타르 말살하며 반공파쇼괴정수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이로 하여 박근혜는 집권초기부터 인민들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최악의 통치위기에 몰려다녔다.

남조선 각계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특대형

## 남조선 여성들은 회세의 살인마 박근혜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러격선침투사교와 관련한 박근혜패당의 비인간적잔학에 격분한 피해자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는 초불이 바다를 이루고 분노의 절규가 하늘에 가닿고있다.

참사를 당한 고등학교학생들과 동갑이나 학생들로부터 대학생, 어린아이들까지 폭탄을 던지거나 시위, 정진인 할것없이 항거의 불길에 활화산처럼 지펴올리고 있다. 특히 남조선여성들은 이번 대형참사로 생애같은 자식들을 잃은 울분과 비탄을 분출하며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를 살인마!》, 《박근혜를 죽여라!》를 내걸고 유모차까지 끌고 다니며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인민들의 피로 수놓은 적시며 남조선당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무덤으로, 동족대결의 판무장으로 만든 《유신》독재자의 죄행과 무덤이 다른가. 현 피뢰정권세력에 의해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져 핵전쟁위험마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온갖 악의 근원,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대해 후회하고 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민심은 천심이다. 사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며 파쇼독재통치와 반공파쇼대결수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박근혜패당이 제 예비와 마찬가지로 분노한 민심의 총폭발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박 철 준

## 회세의 살인마 박근혜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러격선침투사교와 관련한 박근혜패당의 비인간적잔학에 격분한 피해자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는 초불이 바다를 이루고 분노의 절규가 하늘에 가닿고있다.

참사를 당한 고등학교학생들과 동갑이나 학생들로부터 대학생, 어린아이들까지 폭탄을 던지거나 시위, 정진인 할것없이 항거의 불길에 활화산처럼 지펴올리고 있다. 특히 남조선여성들은 이번 대형참사로 생애같은 자식들을 잃은 울분과 비탄을 분출하며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를 살인마!》, 《박근혜를 죽여라!》를 내걸고 유모차까지 끌고 다니며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인민들의 피로 수놓은 적시며 남조선당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무덤으로, 동족대결의 판무장으로 만든 《유신》독재자의 죄행과 무덤이 다른가. 현 피뢰정권세력에 의해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져 핵전쟁위험마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온갖 악의 근원,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대해 후회하고 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민심은 천심이다. 사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요구를 거스르며 파쇼독재통치와 반공파쇼대결수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박근혜패당이 제 예비와 마찬가지로 분노한 민심의 총폭발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박 철 준

## 반역 《정권》 퇴진은 민심의 요구

《세월》호참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괴뢰정권세력에 더 이상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깨닫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서는 반박근혜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각계층 대중 5만여명이 《세월》호참사를 빛낸 피뢰패당의 죄악을 단죄하며 15개 시, 도에서 반《정부》투쟁에 일제히 돌입한 사실은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게 폭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5월 8일 광주와 전라남도에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초불투쟁이 벌어졌다. 전라남도의 18개 시, 군들

## 민심은 민심의 요구

에 울려지고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도처에서 줄기차게 벌어지는 항의시위, 초불투쟁, 해물투쟁은 모두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초래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다른 한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에 참가한 수천명의 미 국민들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처사에 대해 《그 너저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다. 독재자의 딸은 결코 책임지는 법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라고 비난한 소식을 실었다.

인터넷신문 《민권일보》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박근혜의 무능이 폭로되고 사회적으로 그가 사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로동과 세계》신문은 민주주론이 피뢰당국에 대한 인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박근혜퇴진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피해자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투쟁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월 5일 피해자가족들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투쟁실시와 《국회》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 전개하였다. 종교단체들과 야당들도 투쟁도움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인 김한길과

## 단 평 스스로 청한 불행의 운명

《세월》호참사로 버려져 흔들리는 괴뢰정권에 매달려있던 온갖 지지분한것들이 박근혜를 비호두둔하는 술렁거리고있다. 그 대가로 어제는 《KBS》방송사 보도국장이라는자가 곤욕을 치르더니 오늘은 또 괴뢰보훈처장 박승춘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있다.

얼마전 이자는 어느 한 모임에서 지금 《세월》호참사피해자들에게 현 《정권》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있다고 탄식하던 끝에 남조선에서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겁주었다. 국악한 살인마로 규탄받고있는 박근혜를 무작정 감싸려는 한 이자의 망발은 가뜰이나 격양된 민심을 더욱 들뜨게하였다. 박승춘으로 말하면 지난 《대통령》선거때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려



《세월》호참사를 참사 규탄하는 재민동맹회

